

# 여, 공수처 '영장 논란' 질타...야, '비화폰 통화' 수사 촉구

###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B1 병커 구금 검토 의혹 등 확인

25일 진행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와 비화폰 수사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규택 의원은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바로 '영장 소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중사자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군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위는 마지막 청문회인 이날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난 뒤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도 검토 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특위는 경호처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 계엄 당시 수방사 B1 병커에 50명기량의 구금을 검토한 의혹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문·노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탓에 비상계엄 관련 진상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소탕'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일이 되면... "나에게 이익" 30.6% "국가에 이익" 66.4%

###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4' '통일 필요' 52.9% 역대 최저 수준

남북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5일 공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4'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다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30.6%로 집계됐다.

통일이 나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은 세대별로 23.5~33.8%에 분포, 전 세대에 걸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1991년 이후 출생자)에게서는 통일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답이 단 23.5%에 그쳐 나머지 세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일이 '국가에 매우/다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66.4%로 측정됐으며, '북한주민에 이익이 된다'는 답은 92.4%에 달했다.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통일이 개인적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2019년(4월 조사)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정도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5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19년(52.7%)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구진은 "통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전체로서 국가와 북한 주민이며 자신은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시각이 매우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따라서 통일에 소극적이고 냉담한 여론 추세를 반전하려면 통일이 국가와 전세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도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작년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명을 상대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통일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주변국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2014년 시작돼 매년 1~2차례 진행되며 이번 조사는 14회째다. /연합뉴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실용주의 광폭 행보

### 오늘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검찰 부당 기소·무죄 확신 "대선 행보에 큰 변수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이어 다음날인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인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 일정만 소화했으며, 대담회 영상도 주말께나 공개된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챙겨보고,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 준비에만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이어 직접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내달 말께 이뤄질 것

으로 전망되면서 당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도 읽힌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국에서 이 대표의 최대 고비가 선거법 재판 2심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대선 기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일단 당 지도부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부당한 기소를 주장하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중도중 공약을 위한 민생·경제 행보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또다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최종심이 아닌 만큼 대선 행보에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친명(친이재명)계의 판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죄로 확신하지만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전혀 동요 없을 것으로 본다. 사법 리스크 문제는 이미 지지율에도 반영돼 있다"며 "당연히 지금까지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비명계 주자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맞물려 계파 갈등이 전면에 불거질 수도 있다.

한 비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최종심이 아니어도 2심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일국 체제' 여도 논란은 불가피하고 당도, 이 대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